



두 눈 질끈 감고

25일 강릉 강릉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청학기 전국여자 중고축구대회' 여고부 결승전에서 오산정보고의 최미래가 슛을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적함대 스페인, 미국에 침몰

컨페드컵 준결승…미국 빠른 역습에 2-0 패

A매치 35경기연속 무패행진 기록도 마침표

'복병' 미국이 2009 국제축구연맹(FIFA) 컨페더레이션스컵(이하 컨페드컵)에서 '무적함대' 스페인을 침몰시키는 '그라운드 반란'을 일으켰다.

미국은 25일(이하 한국시간) 오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블룸포滕인 프리스티트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준결승에서 전반 27분에 터진 조지 알티도르의 선제골과 후반 29분 클립린 멘시의 추가골로 스페인을 2-0으로 제압했다.

이로써 미국은 결승에 선착해 26일 열릴 브라질-남아프리카공화국 승자와 우승컵을 다룬다.

반면 최근 연승 행진을 15경기에서 멈춘 스페인은 2006년 11월 이후 A매치 연속 무패 행진도 35경기에서 끝이 났다.

지난해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2008) 챔피언 스페인은 이에 따라 브라질이 1993-

1996년 사이 세웠던 A매치 최다 연속 무패 기록(35경기)도 갈아치울 절호의 기회도 날렸다.

조별리그 3전 전승으로 준결승에 오른 FIFA 랭킹 1위 스페인은 3골로 득점 공동 선두인 페르난도 토레스와 다비드 비야를 앞세워 FIFA 랭킹 14위인 미국에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미국의 공세는 초반부터 막서웠다. 미국은 전반 7분 공격수 카리 데이비스의 오른발 오버헤드 킥과 1분 뒤 데이비스의 중거리 슈팅으로 스페인 골문을 노렸다.

스페인이 주춤하는 사이 미국이 알티도르의 선제골로 기선을 잡았다.

알티도르가 전반 27분 아크 정면에서 상대 수비수를 따돌리고 오른발 인사이드로 강슛을 날렸고 공은 스페인 골키퍼 이케르

카시야스의 손끝에 걸린 뒤 왼쪽 골대를 맞고 골문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스페인이 컨페드컵 4경기를 치르면서 얻은 첫 실점.

반격에 나선 스페인은 토레스와 비야가 이따금 슈팅을 시도했지만 미국의 수문장 팀 하워드의 선방에 막히거나 골문을 벗어났다.

스페인은 후반 들어 공세의 수위를 더 높이고도 미국 수비진의 몸을 아끼지 않는 육탄 저지를 뽐기는 쉽지 않았다.

이에 반해 수비에 집중하다 역습을 노렸던 미국은 후반 29분 추가골까지 뽑아 승기를 굳혔다.

랜던 도너번이 오른쪽 측면에서 올린 크로스가 상대 수비수 말에 맞고 굴절된 것을 멘시가 골 지역 정면에서 그대로 오른발로 차 넣어 다시 한번 스페인 골망을 출렁였다.

카를레스 푸욜과 세르히오 라모스, 제라드 피케, 호안 카프델라리 등 스페인의 호화 포백(4-back) 수비진은 미국에 두 번째 골까지 허용하자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다.

미국은 후반 40분 마이클 브래들리가 거친 태클로 뇌상을 당하는 수적 열세에 놓였음에도 견고한 수비로 두 점 차 승리를 끌까지 지켜냈다.

/연합뉴스

사재혁 역도 3관왕 '번쩍'

한·중·일 초청대회…한국기록 경신에는 실패

2008 베이징올림픽 남자역도 금메달리스트 사재혁(24·강원도청)이 7개월만에 출전한 국제 역도대회에서 한국신기록을 경신하는데 실패했다.

사재혁은 25일 경기도 포천종합체육관에서 열린 2009 한중일 국제초청역도대회 첫째 날 남자 77kg급 용상 1차 시기에서 200kg에 성공했지만 2차 시기에서 206kg을 들어 올리지 못했다.

이로써 사재혁은 지난해 6월 김광훈이 베이징올림픽 지명평가전에서 세웠던 한국기록(205kg)을 깨지 못했다.

앞서 사재혁은 인상 2차 시기에서 161kg을 들고 3차 시기에서 베이징올림픽 때

자신이 작성한 한국기록(163kg)보다 1kg 더 나가는 164kg을 들어 올리는데 역시 실패했다.

사재혁은 다만 인상 161kg 용상 200kg 합계 361kg를 기록하며 2위 일본의 다케 세이치로(합계 255kg)를 물리치고 3관왕을 차지하는 데 만족해야 했다.

사재혁은 지난달 29일 훈련 도중 비공인 용상 세계신기록을 수립한 터라 최소 한국신기록은 깔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사재혁은 컨디션 난조에 마무리 동작에서 아쉬움을 남기며 인상 1차례, 용상 2차례 등 모두 3차례 시기를 실패, 베이징을 립니다. /연합뉴스



25일 포천종합체육관에서 열린 2009 한·중·일 국제역도경기대회에서 사재혁 선수가 한국 신기록인 용상 206kg에 실패한 뒤 아쉬워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체육고 첫 우승

전남체육중 단체전 준우승

전국학생레슬링 금4 은2 동2

전남체육중이 제37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학생레슬링선수권대회에서 단체전 준우승을 차지했다.

전남체육중은 지난 24일 강원도 고성군에서 막을 내린 이번 대회에서 금 4, 은 2, 동 2개를 획득, '전남 체육중의 명예'를 이어갈 차세대 유망주로 자리잡았다.

이번 대회에서 강정민(자유형 39kg·3년)·김승엽(자유형 50kg·3년)·박성재(자유형 46kg·2년)·김규현(자유형 76kg·3년)이 각각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또한 고등부 경기에서 강선희(합령풀프리 3년)이 그레고리안 50kg 결승에서 정점석(경기체고)을 2-1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전남고등부대표팀은 이번 대회에서 금 1, 동 3개를 획득했다. /서승원기자 swseo@

고흥서 '노인 생활체육대회'

전남생체협 내달 2일 개최

22개 시·군 1,600여명 참가

제4회 전남노인생활체육대회가 내달 2일 고흥에서 열린다.

전남생체육협의회(회장 이탁우·이하 생체협) 주최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22개 시·군에 60세 이상 생활체육 동호인 1천6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게이트볼·궁도·배드민턴·생활체조·정구·탁구 등 6개 종목의 경기가 펼쳐진다.

이탁우 전남생체협회장은 "생활체육을 통해 노인들의 건강과 삶의 힘력을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승원기자 swseo@

을 위해 마련됐다.

개회식은 2일 오전 11시30분 고흥군 팔영체육관에서 열리며 '바쁘다 바빠'·'축의의 사탕먹기'·'짬이어 골글리기' 등 다양한 레크리에이션도 이어진다.

또한 종별별 최고령자 김용순(게이트볼·86·60세)·등동열(궁도·81·우승한정구·81)·김재익(배드민턴·80)·김문오(생활체조·80)·김병희(탁구·77) 등 호인에겐 건강상이 수여된다.

이탁우 전남생체협회장은 "생활체육을 통해 노인들의 건강과 삶의 힘력을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승원기자 swseo@



26일(금)

▲NBA 드래프트 (08:30·MBCESPN)

▲국제친선역도 선수권 여자부대회 (13:35·MBC)

▲국민생활체육 여자전하장사대회 (14:00·MBCESPN)

▲일본 프로야구 <야쿠르트: 요미우리> (17:50·SBS스포츠)

▲프로야구 <KIA: 하이어로즈> (18:20·ETV)·<롯데: 화한> (18:30·MBCESPN), <LG: SK> (18:10·KBSN SPORTS), <두산: 삼성> (18:20·Xports)

광주대, 호남대 꺾고 우승 전국체전 1차예선

광주대가 제90회 전국체전 축구 지역 1차 예선에서 우승했다.

광주대는 25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대학부 결승에서 호남대에 승부차기 승(4-3)을 거뒀다.

이날 경기에서 양팀은 전·후반 득점없이

끝내 결국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을 펼쳤다.

각팀에서 다섯명이 나서는 승부차기에서 도 양팀은 3-3으로 승부를 가리지 못하다 여섯번째 선수에서 승부가 갈리고 말았다.

/서승원기자 swseo@

사격 이보나 트랩 우승

전국체전 광주대표 이보나(우리은행)가 최고의 명예수입을 입증했다.

이보나는 25일 나주종합사격장에서 열린 제25회 회장기전국사격대회 여자일반 트랩에서 86점을 기록, 손혜경(김포시청·84점)·강지은(KT·81점)을 제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서승원기자 swseo@

인기폭발 신제품!!

'큰 놈'

익, 주사, 링, 펌프가 아닙니다. 아내가 개발한 별기부전을 개선하는 신제품 기구입니다. 달팽이 모양의 大, 中, 小(한 세트)로 구성되었고 실용신간 특허 등록되어 노인도 사용할 수 있으며 조루나 작은 분도 사용이 편리하고 흐대가 간편합니다.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가격은 저렴하고 만족도는 제일 높은 불티나입니다. 근데입니다.

저렴한 가격 99,000원

다이아몬드링 주가시 3만원

생인증증정에 얹어며 사용

설명서, 경적자 및 사용법

을 전송해 드립니다. (대상: 60세 이상)

제작자: 김경숙(전시장)

제작자